

2023년도 제1차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간사

평의위원회장

결재

권경미



개최일시	2023년 4월 19일(수) 오전 10시 30분	회의장소	행정관 605호		
		담당부서	기획팀		
참석의원	이형진, 김경희, 나지수, 오지영, 박화진, 서보밀, 윤희수, 심석영, 심채연, 손유빈	기록자(간사)	권경미	기록일	2023. 4. 19.
		불참의원	신태균, 김용환		
		기타참석자	재무회계팀장 김태환 학사팀장 정현정 기획팀장 권경미(간사)		
안건		1. 학칙 개정(안) 2. 2022학년도 결산(자문)			
배포자료 및 기타		1. 대학평의원회 부의안건 1부 2. 2022학년도 결산 자료 및 부속자료 1부			

■ 심의(자문) 사항

- 이형진 대학평의위원회 의장은 12명의 대학평의원 중 10명이 참여하여 2023학년도 제1차 대학평의위원회가 성원 되었음을 확인하고 개회를 선언한다.

[안건1] 학칙 개정(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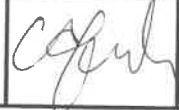
- 의장은 학칙 개정(안)을 안건 상정하고 설명을 요청한다.
- 학사팀 정현정 팀장과 기획팀 권경미 팀장은 배포된 자료를 바탕으로 학칙 개정(안)을 설명한다.
- 심채연 의원은 <별표 4> 개정안에 대하여 현재는 해당 연계전공(비서학, 인재개발전공)에 학생은 없는 것인지와 <별표 2>에 신설하는 글로벌융합대학의 운영 체제가 갖춰졌는지에 대해 질의하다.
- 기획팀 권경미 팀장은 해당 연계전공(비서학, 인재개발)에 학생이 없다고 답변하고, 외국인 학생들의 입학 유치와 체계적인 지원은 그동안 내부적으로 계속 고민해왔던 부분인데 이번에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답변하다.
- 심채연 의원은 글로벌융합대학이 기초교양대학과 유사한 형태인지 질의하다.
- 권경미 팀장은 기초교양대학은 학생은 소속되지 않고, 교육과정만 운영하는데, 글로벌융합대학에는 외국인 입학생이 소속되어 1년간 한국어 교육, 교양 교육, 또 필요시 전공 교육을 수강하게 되고, 2학년 때부터 타과로의 전과 혹은 학생자율설계전공으로 전공을 이수하게 된다고 답변하다.
- 심채연 의원은 현재 우리대학에 외국인 학생이 많지 않은데 글로벌융합대학을 신설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속 교원의 배치나 해당 학과만을 위한 수업 개설 등의 비용을 감안하면, 재정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것인지 질의하다.
- 권경미 팀장은 현재 우리대학에 외국인 학생이 많지 않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글로벌융합대학을 신설하는 것이고, 전에 없던 새로운 수업을 개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외국인 학생을 위한 교육 과정들을 개편하고, 개선하는 것이라고 답변하다.
- 심채연 의원은 외국인 학생의 경우 한국어와 교양 학습을 위해서만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전공하고 싶은 학과가 있을 것인데, 글로벌융합대학이 학문단위의 전문성은 없는 한국어 교육 역할만을 하는

2023년도 제1차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간사

평의위원회장

권경미



결
재

것으로 인식될 수 있을 것 같은 우려도 있어서 어떻게 홍보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 질의하다.

- 권경미 팀장은 기존에는 외국인 학생 중에 한국어 실력이 부족하여 선발 과정에서 입학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집중 교육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며, 이후에 희망 학과로 전과하거나 학생자율설계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고 답변하다. 또한, 현재 글로벌융합대학 TF에서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 중이며, 일부 지도교수님들이 배치될 예정이라고 부연하다.
- 의장은 본인이 글로벌융합대학 TF에 소속되어 있다고 말하며, 글로벌융합대학은 외국인 학생들이 1년 동안 한국 대학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고, 2학년 때부터는 각 전공에 소속될 수 있도록 하거나 자율설계전공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며, 기존 행정인력과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초기 단계에 큰 비용 투자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이다.
- 손유빈 의원은 학생자율전공 개설을 위한 과정이 쉽지 않은데, 외국인 학생이 신청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고 하며, 혹시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학생자율전공 개설 제도 운영 방안을 별도로 준비하고 있는지 질의하다.
- 권경미 팀장은 교수님들도 하나의 전공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단계별 심의가 필요한데 외국인 학생의 경우 본인이 새로운 전공을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미 만들어진 전공들을 소개하고, 교원추천자율설계전공도 고려하여 외국인 학생들에게 조금 더 밀착 지원하는 방안을 고안 중이라고 답변하다.
- 박화진 의원은 제57조 개정안에 대하여 조기졸업에 필요한 성적평점평균 상향 기준이 당장 내년부터 적용이 된다면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학생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질의하다.
- 정현정 팀장은 개정(안)은 학칙 개정(안) 사전 공고 2주의 기간을 통해 학생들에게 고지하였으며, 비상대책위원회에 여러 번 해당 부분을 안내하고 의견을 청취하였음을 설명하다. 또한, 개선된 제도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시행을 한 학기 유예하였다고 부연 설명하다.
- 박화진 의원은 학석사 연계과정 조기졸업 요건도 상향조정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질의하다.
- 정현정 팀장은 학석사연계과정은 대학원 진학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이고 학석사연계 기간 중 대학원 수업도 병행하게 되므로 학석사연계생 지원 기준은 변경없이 유지하려고 한다고 답변하다.
- 의장은 성적 평가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장학생, 교환학생 선발 등에서 요구하는 최저 학점의 기준도 상향 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또한 학점 인플레이션에 대해 후에 정부에서 문제제기할 경우 다시 학칙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한 대비도 되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다.
- 정현정 팀장은 장학생, 교환학생 선발 등은 지원 자격으로 최저 학점을 두고 있고, 지원 이후 별도의 기준에 따른 선발 과정을 거치므로 지원 자격의 최저 학점을 상향 조정하지 않았다고 답변하다. 또한, 성적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은 수년간 언급되어 왔으나, 이미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들이 성적에 대하여 절대평가나 교원 자율 평가로 전환하였으며, 이는 대학에서 학생 역량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캠퍼스 디자인 등 좋은 교과목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성적을 이유로 해당 교과목을 선택하는데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추가 설명하다.
- 의장은 다른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학칙 개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 완료하다.

2023년도 제1차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간사	평의위원회장	결 재
	권경미		

▶ 심의 결과

- 의장과 위원들은 학칙 개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다.

[안건2] 2022학년도 결산(안) 지문

- 의장은 2022학년도 결산 지문을 안건 상정하고, 설명을 요청하다.
- 재무회계팀 김태환 팀장은 배포된 자료를 바탕으로 2022학년도 결산(안)을 설명하다.
- 서보밀 의원은 외부회계 감사에서 공식적인 최종 의견이 나온 것이 아닌지에 대해 질의하다.
- 김태환 팀장은 외부회계법인 내에 자체 심의기구에서 최종적으로 심의 통과 되었다는 통보 받아서 사실상 최종 의견을 받았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답변하다.
- 서보밀 의원은 전체적으로 적정의견이라고 하는데 세부적인 사항에서 개선요구나 지적은 없었는지 질의하다.
- 김태환 팀장은 개선요구나 지적은 없었으며, 내년부터 지정감사제가 실시되기 때문에 내년에 다른 회계법인에서 감사를 진행할 때 기존 자료에 대한 문제가 없도록 정동회계법인에서 이번에 더 많은 인력과 시간을 투입해서 철저하게 자료를 확인했다고 답변하다.
- 손유빈 의원은 코로나 펜데믹 종식 이후, 등록금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보여지는 데 교내 장학금 파트에서는 등록금 수입 감소에 따라 교내 장학금 지급 규모도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다.
- 김태환 팀장은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은 전체적으로 증가한 것이 맞으나, 세부적으로는 학부 등록금 수입은 감소 하였고, 대학원 등록금 수입은 소폭 상승 하였으며, 수강료 수입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이 늘어났다고 답변하다.
- 심채연 의원은 추경예산편성을 통해 조직(행정부서, 학과 등)에 예산이 배정되고, 편성된 예산을 사용한 결과가 결산이며, 추경예산 대비 결산으로 인한 차액이 발생하는 것인지 질의하다.
- 김태환 팀장은 심채연 의원의 설명이 맞다고 답하다. 또한, 추경예산편성시 우리대학은 예산집행계획서와 개별 면담 등을 거쳐 최대한 정확하게 예측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의 특성상 일부 지출 및 수입에 여유를 두어 편성할 수 밖에 없으며, 우리대학은 추경예산대비 99.3%의 높은 집행율을 나타내고 있다고 부연설명하다.
- 심석영 의원은 자금 운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다.
- 김태환 팀장은 우리대학의 자금 운용은 적립금을 활용한 투자 또는 예금 예치 방식이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고 답변하다.
- 서보밀 의원은 적립금 총액이 1.5%정도 증가했는데,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증가액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보여 미래대비측면에서 다소 우려가 된다고 하며,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하다.
- 김태환 팀장은 적립금의 주요 적립 재원은 기부금과 이자수입이고, 지출은 교내 큰 공사의 시행여부나 정책적 결정에 따른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대표성 있게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발언하다.

2023년도 제1차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간사	평의위원회장	결 재
	권경미		

○ 심채연 의원은 학생경비가 감소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다.

○ 김태환 팀장은 결산서 상에는 연구학생경비 해당 계정 부분은 감소한 것으로 보여지나, 실제로 우리대학이 수주한 국고 사업을 통한 학생지원 등은 더 늘어난 부분이 있다고 답변하다.

○ 의장은 르-꼬르동블루 로열티 부분에 대해 질의하다.

○ 김태환 팀장은 우리대학과 르-꼬르동블루 로열티 계약사항에 따른 것이며, 운영경비를 제한 후 순수익금에 대해 일정비율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수강료 수입이 증가하면 해당 로열티도 함께 증가하게 된다고 답변하다.

○ 의장은 추가 의견 또는 질문이 없음을 확인하고, 2022 결산(안)에 대해 자문을 완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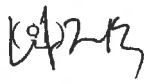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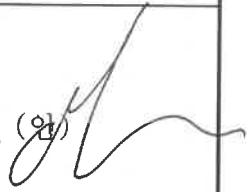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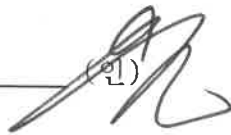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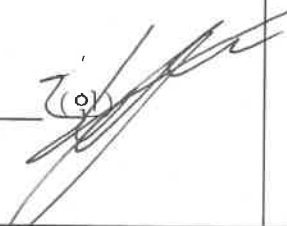
▶ **자문 결과**

- 의장과 의원들은 2022 결산(안)에 따른 자문을 완료하다.

○ 의장은 2023학년도 제1차 대학평의위원회를 마치다. 끝.

2023학년도 제1차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 참석의원 서명

의 장 <u>이 형 진</u> (인) 	부의장 <u>김 경 희</u> (인) 
의 원 <u>나 지 수</u> (인) 	의 원 <u>오 지 영</u> (인) 
의 원 <u>박 화 진</u> (인) 	의 원 <u>서 보 밀</u> (인) 
의 원 <u>윤 휘 수</u> (인) 	의 원 <u>심 석 영</u> (인) 
의 원 <u>심 채 연</u> (인) 	의 원 <u>손 유 빈</u> (인) 